朝鮮日報

夕刊合六面
一部(朝夕刊)金五錢 一個月先金壹圓 參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illegible]
編輯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奉天避難同胞慰問會의組織

一

棄耕成陣墳墓하고 朔風寒天 荒寂한滿洲들로 生活의길을차저서 나가는그것은 그事實自體가벌서 사람으로하여금 斷腸하는생각을 이르키게하는바 이지아니하다 그러한데 그들의 行路는 決코平坦하지못하엿다 달하야 國權의 後援이업는그들 의行路가崎嶇할것은明白한일이 겟고 또中國軍閥의 搾取策은 더군다나 外來人되는 우리朝鮮同胞에對하야 苛斂誅求하는 바甚함이잇서 民不聊生의歎聲을내침이 그몃번이엿섯던가?

二

그리하야 우리同胞들은 九死에一生을어더 겨우農業에다 生涯를부쳐 前途에多少의光明을 보려고하는이도 업지아니하엿섯다 그리하엿더니 그들이 今番의中國動亂으로因하야 莫大한打擊을밧게되엿다 이는 勿論滿洲에在留하는 우리同胞 全般이 그影響을밧지아니함이 업섯겟지마는 特別히甚하기는 京奉沿線에在留하는同胞들이다 本社特派員의調査한바에依하면 이地方에在留하는 同胞의總數는 六千餘人인데 그地方이郭奉兩軍의戰鬪의要衝에잇게되엿슴으로 狼狽至甚하야 거의다 自己所有를抛棄하고 或奉天으로 或朝鮮內地로 其他各處로 流離散亡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치우에떨며 주림에울고 쉬고저하여도 쉴곳도업는 이同胞들은 呼訴할곳업시 蒼天만바라다보고 自己네들의運數만慨歎하고잇다

三

이의지할곳업는同胞들의慘狀을볼적에 누가同情의눈물을 禁할수잇스랴? 이消息을듯고 京城에잇서서 奉天避難同胞慰問會의組織을 보게된것은 참 當然한일이다 우리는 昨年의 三南地方의饑饉에際會하야 또 今年의未曾有한水災에際會하야 一致協力하야 우리의誠意를表한바잇섯다 今番에또우리는同胞愛의一大試鍊期에 達하엿다 잇는同胞들이여!달려들어와 이慰問會의事業에 協贊함을잇지말지어다 이嚴冬雪寒에一刻이三秋와가트니 一分의遲延을許諾하기어려운지라 그럼으로 慰問會에서도 可及的迅速히物資를取集하기爲하야 今月晦內로 期限을定하엿다 우리 內地에서도 困難한同胞가 救濟를기다리는이가 만히잇고 또 朝鮮사람全體의處地가 또그다지넉넉하지못함을 우리가모르는바는아니다 그러나 爲先時急한이避難同胞를 救濟하여야하겟다 救濟할必要는 우리가 모도다困難한處地에잇슴에더욱痛切히 늣기는것이다 우리는 우리의不足한힘이나마 集合하야 그로써 지금絶望의深淵에들어잇는이들에게 一條의希望을 가지게하여야할것이다

四

이와가티하야 우리는 困難當한同胞들을 救濟하는同時에 共同合力하야 行動하는訓練을 엇는것도매우必要한일이다 우리는 [illegible]그와가티行動하는동

안에 서로同胞愛를늣기며 서로力을合하야 目的을達하는 習慣을엇게될것이니 이것은참 우리의貴重한「선물」이될것이다 우리의압길은 이와가튼우리의一致的行動에依하야 開拓될것이니 우리는 모든機會에잇서서 이것을訓練하는것이必要한일이라는것을 다시길게說明할必要도업는것이다

郭氏夫妻 屍體를梟首 大東門外小河站에

(奉天二十六日發) 郭松齡夫妻의 屍體는 今朝來大東門外小河站에 曝하얏슴으로 一般의參觀者는山을이루엇는데 張作霖은郭의衣服이農夫가着하는襤褸한것임으로 絹織物의衣服으로밧고아입히엿다더라

吳氏山海關向은 武裝을解除할目的

(奉天二十六日發) 郭軍背後를警戒할目的으로山海關에駐屯하엿든五軍은郭의敗戰을聞하고奉軍에降服하엿슴으로吳俊陞은武裝을解除할량으로昨日同地에向하엿다더라

殷汝驪盧春芳等 日本領事館으로逃亡

(奉天二十六日發) 郭軍敗戰과함께行衛不明을傳하던殷汝驪王正廷의秘書長盧春芳等은日本領事館新民分館에逃亡하엿다더라

驅逐艦『薄』 秦皇島에急行 在留日本人의保護次로

(天津二十六日發) 天津警備中의驅逐艦『薄』은二十六日午前八時에秦皇島로向하엿다此는郭軍의敗殘兵이掠奪할憂慮가有함으로在留日本人保護에當하리라더라

張作霖 日軍에致謝 王永江을派遣하야

(奉天二十六日發) 奉軍이戰捷함으로因하야張作霖은戰時中에奉天城內를警備한日本의好意를謝하기爲하야省長王永江을總領事館에派遣하야感謝의旨를述하엿다더라

司法調査委員

(北京二十五日發) 中國側司法調査委員은外交、司法兩總長及王寵惠、張耀曾氏로決定하얏는바且開會期는來年初가되리라더라

馮軍軋轢 第一、二軍間에

(天津二十五日發) 馮玉祥은 天津에는第一軍만을入市케하얏섯는데第二軍의一部도旣히入津하야兩軍軋轢의兆가보이더라

日本의對張勸告 敗殘한郭軍部下에게 苛酷한處置를取치말라고

(東京電) 日本政府는人道上으로張作霖에對하야郭松齡의一族及 下에苛酷한處置를取치말라고勸告하기로決하고二十五日奉天總領事에게訓電을發하엿스며吉田總領事는政府의意志를達할양으로極力奔走中이나張作霖은部下가承諾치안는다하면서不應하는模樣임으로吉田總領事는全力으로張氏에게勸告할터이라더라

第四軍勸降次로 吳俊陞山海關에發向

(東京電) 新民屯에잇는郭松齡軍은全部奉天軍에降伏하엿스나山海關에잇는第四軍은態度가不明한外닭에吳俊陞은降伏勸告次로同地에向하엿다더라

朝軍歸還裁可 二十六日午前에

(東京電) 河合參謀總長은二十六日午前十一時三十分東宮御所에伺候攝政殿下께拜謁하고朝鮮에서南滿洲에派遣된步兵一箇大隊砲兵一箇中隊의歸還에關한御裁可를得하고正午退去直時此旨를關東軍司令官에對하야電命하엿다더라

朝鮮補充部隊 今年內撤退歸還

(東京電) 日本陸軍省公表今番滿洲의動亂에際하야關東軍兵力補助를爲하야朝鮮으로부터應急派遣하엿든部隊步兵二大隊砲兵二中隊는同省聲明과如히即時撤退하야年內에는各其現在地에歸還식힐터이오又第十二師團으로부터派遣한補充部隊는明春早早에日本으로歸還식힐豫定이라더라

治水治道 新規計劃內容

米土木等의新規計劃은旣報와如히要求額이縮小된結果目下關係各局은此의編成變更에就하야協議하는中인데二十五、六日頃까지에는全部를完了하야草間財務局長이再度渡東하야細目에外지日本政府의諒解를得하야決定될터이다一時는殆히絶望을報하던土木關係의新規計劃도總督의强硬한主張에依하야當初의計劃보다若干의削減은잇섯스나大體로容認되엿스며其內容을示하면左와如히決定되엿다더라

一、治水　總額二千六百萬圓
洛東江　十個年繼續　一千五百萬圓
漢江　同　一千萬圓
成川江　五個年繼續　一百萬圓

河底의掘鑿防水堤의築造에主力을注한다는데漢江沿岸에는過去四十七尺以上其他沿岸은五尺以上의最高水面보다五尺以上의築堤에依하야絶對安全을目標로施工하게된다

一、港灣　總額四百九十萬圓
釜山港　五個年　二百八十五萬圓
鎭南浦港　二個年　二十五萬圓
雄基港　五個年　六十萬圓
木浦港　同　六十萬圓
多獅島　同　六十萬圓

當初의計劃에比하면相當히削減되엿는데特히多獅島築港과如한것은三百五十萬圓이六十萬圓의五個年으로되엿는데此에依하야船着은便하게되는同時에荷揚場을整備하겟스나將來의大多獅島는今後의計劃에俟치안하면안되겟다

一、道路　二十萬圓(來年度增額) 道路網三千里의完成은往年에計劃된것인데二千里는旣히竣工되고殘餘一千里는工費約一億萬圓의巨額을要하는關係上其前途는尙히遼遠하다二十萬圓의增額은國境의警備道路에充當될것이다그런데秘部分에互한割當額은近近決定될터인데全般을通한來年度割額은三百萬圓이다尙히旣定計劃에基한것으로淸津城津元山釜山의海關工事百萬圓與江戰寧江의治水費百二十萬圓與二等道路百萬圓計三百二十萬圓이엇고新規事業과並하야來年度부터施行된다더라

府內工場調査

京城內에서는大正十四年中의工場及生産額을調査코자府內約三千의各工場(修理도含함)主에對하야來初에申告依賴의書狀을發코자準備中이더라

蔚珍郡民二千餘名 江原道廳에陳情 蔚珍榮州間道路問題로

去九日에蔚珍郡蔚珍面事務所內에서蔚珍郡民大會를開催하고蔚珍榮州間道路速成期成同盟會를組織하얏는데그內容인즉蔚珍郡當局에서厚浦英陽間道路費를郡民에賦課하엿는바一般郡民들은그것보다榮州線이急하다하야速成同盟會를組織하고郡民大會를開催하야左와如히委員을選擧하고蔚珍榮州線道路에對하야郡民二千餘名이歎願書에捺印하야道當局에提出하엿다더라

◇委員
委員長松村嘉造 副委員長盧箕一 執行委員黑田 崔東舜 朱甫源 鄭宗龍 田仁錫 森覺定 佐伯外數十人(蔚珍)

第二回 郡民大會

去二十日午後一時蔚珍郡蔚珍面事務所內에서榮州線道路速成에對하야郡當局의失態로第二回蔚珍郡民大會를開催하고아래와가튼決議가잇섯다더라

◇決議案
一、蔚珍榮州間二等道路豫定線을速히決定할것
二、本年厚英道路改築費賦課를撤廢하는同時에蔚珍榮州間道路改修費를賦課徵收하고地方費補助의有無를不拘하고本年度에起工을期할것
三、郡守에게質問 日本佐伯과森覺은郡守가民意를無視한다고質問하매郡守는若干의辯明을하엿스며同六時半에閉會하엿더라(蔚珍)

江景의 音樂歌劇大會

忠淸南道江景은二萬五千餘名人口가居住하는都會地로公私立學校가具存하나無産兒童에對한敎育機關이업슴을遺憾히하야江景相愛少年團敎養部主催으로去一日부터江景勞働組合二階에서純無産兒童一百五十餘名을募集하고同會幹部樂基宜朴容國鄭仁與三氏가無報酬로誠心敎授한結果其成績이日益良好하나嚴冬雪寒에暖爐도업는松板우에서벌벌떨면서每夜出席하는兒童의情狀이可矜함으로東京帝國女子大學文學科在籍中인李道別禮讓林輔元女史의熱誠으로音樂歌劇大會를去二十二日大正座에開催한바特히金巴雨饒李道別禮讓의淸雅한獨唱은一般聽衆에게深刻한興致를與하엿스며即席에서五十餘圓同情金이有하엿다는데同情者氏名은如左하다더라

時代江景支局十圓 東亞朝鮮江景支局七圓 先驅會五圓 江景靑年會金一封 鄭光輝三圓 衡平社三圓 朴天來 朴源根二圓 朴魯聖 李圭淑 朴英浩 徐昌錫 金斗星 李東雨 裵日奉 朴炳喆 李貞旭 趙炳瀾各一圓 元貴峯二圓以下畧(江景)

三思靑年會 新名稱新組織

慶北盈德郡盈德面三思洞에잇는同志會는元來靑年團體로地方靑年運動에만히努力하여오든바항名稱이넘우漠然한感이업지안己으로去二十五日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全羅碩氏司會로會名은三思洞靑年會라改稱한後綱領改訂과委員改選과決議事項이잇섯다더라

◇委員
執行委員金遷碩 李應先 權錐眼 金學順 崔順得 金淳培 李顯述 金成達 李鋼玉

◇決議
一、革新紀念講演開催에關한件
一、東明勞働夜學會引受에關한件
一、科學思想研究에關한件
一、郡內各團會의現狀調査에關한件
一、盈德靑年聯盟發起에關한件(盈德)

衡平靑年 創立總會禁止 委員을選擧하야 正圍團組織

慶北金泉郡衡平社三週年紀念式과衡平靑年會創立總會를開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去二十五日當地金泉座에서金泉衡平分社三週年紀念式을擧行하엿스며따라서金泉衡平靑年會創立總會를開하는同時에金泉警察當局의禁止로開會치못하고靑年部를두어서衡平靑年委員李福同氏外三人을選擧하엿스며따라서衡平分社正圍團을組織하여金相光氏開會辭와崔[illegible]氏司會로祝電文이만엇고來賓祝辭는亦是當局의禁止되얏는데正圍團任員은左와如하더라

◇任員
常務部 李守明 執行委員李海同 金順祚 劉方友、趙正分 顧問 李永局 石泰衡 高鍾煥、李正得(金泉)

永興公普生 敎員試驗合格

咸南永興公立普校生徒朴良洙는今般咸南道廳에서試驗한小學校及普校敎員檢定試驗에合格되엿다는데勿論朴良洙의做工上努力도만치만은同校三島校長과및石川擔任先生의盡宵勉勵한結果이다하며今般合格者五人中에永校卒業生이三人이오在學生이一人임으로咸南各郡은勿論이고當局者들도매우該校成績의優良함을말하더라(永興)

蔚珍公普紛糾 條件附로解決 大山先生을轉勤키로

去十七日부터蔚珍公立普通學校五學年生徒一同이日人訓導大山의暴行으로因하야同盟休學을하엿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前記五學年生徒等은去益團結을鞏固히하고學校當局에서는學生의要求를速히聽許하지아니함으로去二十二日午前十二時蔚珍公立普通學校內에서學父兄會가開催되야決議中前記

五學年 生徒一同은行列을整然히하고一齊히學父兄會에參席하야生徒側의要求를請하는同時速히解決을하여달라함으로校長이學父兄會는事務室에서開催하자고學生을避하야開催하얏는데

校長은 大山先生은아즉社會上經驗도업고철이업서잘못하엿스니容恕를하여달라하며더뒤로는一切責任을내가負할터이니學校에一任을하라한즉學父兄側에서는學生의要求대로하여로서 그要求는絶對드러줄수업다하매學父兄側은學生마음에맛지아니한先生에게敎授를바드면무엇하느냐』고反駁한바郡守는極端의말로『모다아니배엿도關係업다고』하야學父兄會도圓滿히되지못하고郡守와校長이前記五學年生徒에게無條件登校하라하며生徒等은

益益忿 慰하야『萬若그와가튼先生이學校에一年만잇스면우리는모다마저죽는다』고하매校長은또『大山先生이그와가튼일이잇다하면내가保證할[illegible]니라이學校가全責任을질터이니出席하기를願한다』고하얏스나生徒等은『校長이그와가티우리를無視하면우리는가겟소』하고解散하라한즉

臨場하 얏든警官이『學生들이모다그와가티오래團結하야잇스면警察側은그저잇슬수업슬뿐아니라法律로施行한다고』威脅하기外지하얏스나結局解決되지못할形勢를보고校長은다시事務室에가서學父兄會를開催하고

爛商協 議한結果로年末外지는學校體面을爲하야大山先生에게배우다가其後에는轉勤케하고生徒에게는一切處罰치아니한다』는兩條件으로써學父兄一同이竭誠解諭한結果翌日부터登校할貌樣이라는데生徒들은學校體面을보아登校는하겟스나大山先生이또敎授한다면우리는再次同盟休學을하겟다고決心이鞏固하다더라(蔚珍)

001525

梧柳洞汽車故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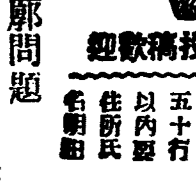
去二十四日午後八時三十五分京城驛發仁川行第二百二十五列車는同九時十一分에梧柳洞驛에서機關車의故障으로因하야出發치못하고其修理를了하도록約五十分이나遲延하야同十時에復舊出發하엿다더라(素砂)

盈德學友委員會

慶北盈德學友會에서는去二十三日當地靑年會館內에서委員會를開하고今番冬期放學에外地留學하든會員들이多數歸鄕하엿슴을際하야地方發展과會員들사이에親睦交通等을目하야如左한決議가잇섯다더라

◇決議
一、童話童謠大會開催(本地方은就學兒童과農村兒童이多數한바學藝獎勵를助할機關이며兒童互相親睦을圖키爲하야)時日은十二月二十九日午後七時半場所는盈德邑敎世軍營▲忘年會開催의件時日은十二月三十一日場所는盈德靑年會館會費每人二十錢▲學術講演會開催의件時日은來年一月三日場所는靑年會館目的은科學普及爲主演士는金昌漢、金明斗、李茲錫外數氏(本地方靑年諸氏는勿論以外紳士淑女諸位도來參하기를바란다더라(盈德)

雄基遊廓問題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要住所氏名明記

◇처음으로雄基에와서市街를도라보는사람들은누구나반드시한가지奇怪한事實을發見하고因하야不快를感할것이니라 그는낫이면油頭粉面한娘子軍들이市街地를濶步橫行함이오 밤이면紅燈綠酒에醉眼이朦朧한浴遊郞들의淫蕩한노래와 妖邪한實聲과燈들의우승소리를市街地區에서들을수잇는것이니 이는一定한遊廓町이업시무슨館 무슨館하는料理집이市街處處에散在한外닭이다

◇元來遊廓이란것이人類社會의羞恥되는最大罪惡인것은이에새삼스럽게 呶呶할必要가업다 또한사람으로서白晝에사람의고기(貞操)를公公然하게팔아먹는이악착한社會制度를이제배瓦할勇氣도나지안는다 다시말하면나는이에서遊廓制度의不合理를論述하려는것도아니오 公娼廢止를唱道하려는것도아니다 그는다現社會制度改革의根本問題에돌리고 내가이제말하려는것은人肉商이라할만한料理집들이神聖한市街와純潔한閭巷에散在함이社會風紀上 斷然不可함을絶叫하는바이다

◇公娼制度를是認하는이社會의法律도그의害毒을念慮하야市街地에는遊廓設置를不許하고반드시市街에서多少隔離한外部에料理집만도리케하야一個의遊廓町을形成하게하는것이常例이다

그런데雄基에는所謂料理집들이或은繁多한市街地의中央에도在하며或은純眞한子女를養育하는閭閻家隣里에도有하야直接間接으로害毒을流布하니이엇지雄基社會의重大問題가아닐것이랴

◇思하라!雄基人士여!사람은木石이아니오感情的動物인以上에環境의感化를밧지안흘수업는것이다 그들이市街中央에번듯이나안저魔手와妖言으로神聖한靑年을誘引하야陷落의陷穽으로引導할것도疑心업는事實이며또한閭巷에숨여잇서純眞한婦女들의風紀에惡影響을與하며天眞의子女에게惡感化를與할것도明若觀火이니社會風紀에만問題될것이아니라兒童保育上에도實로重大問題가되는것이니 雄基人士의切實한覺悟와奮起를促하야마지안는바이다(雄基一市民)

楊平金組新築

楊平金融組合은大正一年度에設立된바臨時로組合所를建築하얏던바位置不便上一般公衆이遺憾으로생각하더니今年度에更新하기로決定되야六千五百圓豫算으로瓦製新築을하야去十一月三十日頃에竣工하고本月二十一日부터事務를執行하얏는데形便에依하야落成式은明年三四月頃에擧行한다더라(楊平)

淸道書畵展覽

朝鮮各地方을巡廻하는金李亂氏는淸道에到着하야即時會員을募集하고二十五日淸道驛前에서書畵展覽會를開催한後邑內로갈터이라는데特히經營困難中인私立道州學院을爲하야有志人士의援助를어더會員을多數參加케하고會費를喜捨하야同學院에寄附할豫定으로二十七八日頃書畵展覽會를開催하리라는데時日과場所와其他會費는未定이라더라(淸道)

元山新年歌劇

元山少年會에서는希望만흔新年을뜻잇게마즈려고오는一月一二兩日間少年歌劇大會를元山靑年會後援으로開催한다는바場所는元山同樂座이며演題는如左하다더라

◇演題
一、浮浪하는것은새의죽엄、歌劇
一、아버지를차저서、歌劇
一、五十錢 童話劇以外音樂도多種이잇다더라(元山)

長城市電話開通

湖南線長城驛은逐日發展되여全羅南北道에介在한商業의中心地로十餘個의長電話만通하든바此를遺憾히하던中本年秋期부터郡當局과繁榮會의斡旋으로電話施設을遞信局에申請한結果餘議되야來一月十日頃에驛前과舊邑內에市內電話가通하게되리라는데加入은三十八番이라더라(長城)

株式으로建築 駐在所를

咸興郡朱地面興上里警察官駐在所는舊式建物로狹窄을感하던바同管內州西面長韓相咸朱地面女金弘集其外地方有力者鄭根鎔李基燦諸氏의發起로兩面에一百二十六株를[illegible]一面에六十三株式分擔하야每株二十圓總計二千五百二十圓의新築을計劃하엿는데其株主의氏名은如左하더라

株主
鄭根鎔 金共灝 金數勳 李承蘇各五株式其外는二三株式出資하얏다더라

面長人選注目 京畿道

安城郡二竹面長人選問題에對하야某方面으로傳하는말에依하면同面長李運界氏가今般辭職願을提出하얏다는데當面內에도面長의適任者가잇슬것인데他地方에서選定하야온다는風說이盛히傳播됨으로此는郡當局에서도擧境十分斟酌하야如許한錯誤的輕擧는업슬이라고思維하는바이나萬一의境遇로風聞과如히事實化한다하면此는當面內의重要한問題가되리라하야一般面民들은將來를자못注目視하는同時秘密裡에서무슨對策을講究하는듯하다고傳하더라(竹山)

咸山聯盟講演

咸山靑年聯盟에서는去二十日咸興東明劇場에서思想講演을하얏는데各演士들은時局의大勢에關하야萬丈의氣焰으로熱辯을吐하야聽衆에게만흔感動을주엇는데演士及演題는如左하더라

◇演題及演士
靑年運動의史的考察 蔡奎桓
中國動亂에對하야 金亨植
資本集中과朝鮮人의商業權柄과(咸興)

潭陽勞聯委員會

全南潭陽勞働者組合聯盟에서는今月二十三日潭陽靑年會事務所內에서同委員會를開催하고當地鞠埰雄家族에게毆打를當한勞組員徐占洙君事件에對하야一般勞働組合들은興奮된態度로徐氏가完治하기外지의物質과友誼를合하야救護策을實行키로決議하고明年一月一日에全郡同件을網羅하야懇親會를盛大히召集할것을決議後散會하엿다더라(潭陽)

潭陽靑年委員會

全南潭陽靑年會執行委員會를去二十三日同會事務所內에서全委員이集合하야諸般事項을左記와如히決議後散會하엿다더라

◇決意
一、潭陽勞働組合員徐占洙君救護에關한件 當地富豪鞠埰雄家族三人에게勞働組合員徐占洙君이毆打를當하야頗히重傷된事件에對하야는爲先治療費로委員一同이十圓金을支拂키로決議함
一、忘年會開催에關한件

手車組合緊急會

全南潭陽郡手車勞働組合에는去二十三日潭陽靑年會事務所에召集하야緊急會를開催하고當地鞠埰雄弟鞠埰衡外二名에게毆打를當한勞働組合員徐占洙君은漸漸傷處가危毒하야감으로光州某病院으로轉療케하기爲하야一般組合員들은分錢을合하야治療費를補助하는同時診斷書를내여當地警察署에告訴를提出하고一方으로今番事件에對한警察署의分明한處理를注視한다더라(潭陽)

陽村郵便 配達無責任

忠南論山郡陽村郵便所는同陽村市場에잇는小規模의郵便所로여러가지施設이不完全하야그러함인지너무도同郵便所의配達이無責任하야怨聲이藉藉하다는데普通信配達은姑舍하고每日村洞으로配達되는新聞外지엇던洞里에는八九日式配達치안는다하며注意하야責任的履行으로配達하는것이洞口酒幕이나不然하면人便에依賴하야配達케한다는바이가티配達이遲滯되거나或人便으로傳하는것이郵便所配達夫關係라하겟지마는如何間一般人士들은同郵便所當局者의事務에責任을充實히하기를바란다더라(江景)

迎日靑聯委員會

短時日의歷史를가진迎日靑年聯盟은오히려그동안內部的充實과土臺를鞏固히樹立식힘에徹底하려努力하던乙丑이다감을懷하야去二十四日下午七時에迎日靑年會館에서第三回常務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新年勞朋에地方細胞團體를歷訪할일
一、諸般文書整理할일
一、常務委員增選에關한일
一、細胞團體狀況調査에關한일(浦項)

稗拔競進會 水原郡陰德

面에서는去二十四日稗拔競進會와大正十三年度納稅成績優良里表彰式을擧行하얏는데稗拔一等은水花里納稅一等은擄田里인데各各商品을授與하얏다더라(南陽)

三湖消防器準備 住民은自發的으로寄附

咸南三湖는戶數가七百餘戶에人口가四千名을가진大村인데住民은恒常火災를두려워서消防器가업슴을遺憾하던바同地消防組頭其他有志諸氏의發起로不日間七百五十圓의巨額을募集하엿는데아직外지繼續中이오豫定金額은一千三百圓이라더라(洪原)

少年會創立期成會

慶北盈德郡에서는少年及靑年들의發起로盈德少年會創立期成會를去二十四日當地時代日報支局內에서開會한바左와如한決議가잇섯다더라

◇決議
一、存在期間은少年會創立外지로함一、事務所는盈德靑年會館內로함一、創立總會時日은十二月卅一日午前十時一、創立總會場所는盈德靑年會館으로함一、會員年齡은十二歲以上으로十八歲以下外지할것

◇委員
宣傳部 富興準 崔仲仁 徐鳳均 會員[illegible] 崔天寶 書明任(盈德)

地方學界

洗浦俱樂部總會

江原道平康郡洗浦靑年俱樂部에서는去二十日第一回定期總會를朝鮮日報洗浦分局內에서開催하얏는데決議事項中部員에意見衝突이生하야決議를完了치못하고臨時委員을選定한後散會하얏더라

臨時委員 裵仁福 白文河 金永泰 金奎善 安承文(洗浦)

學父兄會組織 永川公

立普通學校에는以來學父兄會라는機關이업서一般學父兄은每樣遺憾하든바某某人士의斡旋으로지난二十三日에該普校講堂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엿다는데綱領과被選된任員은如左하다더라(永川)

◇綱領
學父兄의連絡親睦을堅固히하며同時에學生의愛護와學校當局과의關係를嚴密히할일

◇任員
會長柳東植 副會長李殷秀 幹事林永浦以下八人

降仙里勞働夜學

江原道襄陽郡降峴面降仙里에서는二年前부터冬農閑期를乘하야無産勞働者兒童들의文盲된것을慨歎하야全昌伯李鍾九康相奎氏外十一人의熱誠으로夜學會를組織하고夜學生에게는燈油費外지免除한結果每日學生이增加하야現在五十七名에達한바甲乙丙丁戊五班에分하야敎授하며維持費는前記三氏가洞里有志에懇請하야同情金二十五圓을得하얏다더라

敎員金錫起實費天李誠雨(襄陽)

女子夜學修業式

全南長城靑年會經營인女子夜學部에서는去二十三日午後八時同會館內에서第一回修業式을擧行하얏다는데修業生은十三人이며乙班明年六月修業할生徒는三十五人이라더라(長城)

主校進級式 義州郡古

津面樂元基督敎會主日學校幼年部에서는지난二十三日下午七時當地敎會堂內에서施式及進級式을部長白洛鳳氏司會下에盛大히擧行하엿는데進級生은崔聖謨 文晉丹 崔善福 洪明信 尹致周 安孝信等이라더라(新義州)

樂元洞夜學 義州郡古

津面樂元洞有志靑年은當地三省學校敎室을빌어夜學部를設하고熱心으로敎授한다는데講師는李永爽(部長)朴英根 白洛鳳 李致福 鄭順榛 等諸氏오夜學生은男女並四十餘人이라더라(新義州)

雋志美行

良心가진三地主

全南長興郡府東面平化里高東錫氏와同道同郡長東面益山里安衡中氏와同道康津郡古郡面上樂里張炫九三氏는小作人에게負擔식히던地稅及公課를本年부터自納하는同時에一般小作人에게對하야小作料定租三割引으로收納하는바一般小作人은三氏의德義를稱頌한다더라(長興)

孝婦褒賞 淸道省峴에잇는

鄕道致의妻金氏는媤父母에對한孝誠이至極하야隣里鄕黨의稱頌이藉藉하던바昨年부터媤母가癩病에罹하야家事를돌보지못하게되엿슴으로家庭을處理에注意周到할뿐아니라病든媤母를爲하야여러가지의慰安을하야奉養이至極함으로洞民이協議한結果去十九日褒賞式을擧行하고約五圓價値되는物品과現金一圓을賞與하얏다더라(淸道)

盧一界氏 江原道金化郡邑

內面岩井里盧一界氏는一諸貧家로家勢가富裕치못함에도不拘하고社會事業에精神的又는物質的으로盡心竭力하던바今番에또當地幼年學園을爲하야金一百五十圓(其間月五圓式을寄贈함에도不拘하고)을寄附하고또五十圓의金錢을더消費하여야完成될『그네』는自擔하야敎育事業에는全力을犧牲하겟다는氏의熱誠을發起人과學父兄은勿論이오隣近人士外지稱頌이藉藉하다더라(金化)

◇寸鐵◇

【楊州】 別內面李某는相當한資産을有한者인데今般楊州公普增築金募集에當하야一分錢도不出한다고其子는某校訓導인데

【奉天】 朔風寒雪에數千의避難同胞가南便을바라고섯다內地同胞여此消息을聞知乎?

【成川】 長林公普는校舍新築問題로紛擾에陷하얏다面民은當局을非難하는同時에重修를한다면賦役은못하겟다고

◇宣普忘年會 宣川公立普通學校高等科生一同은同校講堂에서去二十四日午前十二時에校長以外諸先生과가티師弟間의溫情스러운忘年會를開催하고各種餘興으로滋味잇는가운데閉會하엿다더라(宣川)

◇洪原靑年忘年會 咸南洪原靑年有志들의發起로去二十四日午後七時부터同邑內朴景龍商店上階에모히여忘年會를開催하고出席浩君의朝鮮의對한靑年運動與其變君의洪原에對한靑年運動에感想을말한後餘興外지有하고同十一時에閉會하얏다더라(洪原)

◇黃台淵追悼會 咸南洪原郡靑年有志의發起로去二十日午後九時부터同郡天道敎宗理院內에서同郡靑年聯盟의幹部인故黃台淵君의追悼會를開催하얏다더라(洪原)

地方經濟

元山輸入滿粟

元山港에輸入되는滿洲粟은每年其數量이增加되엿다는바昨年輸入數量二千八百九十五萬五千斤價格百九十二萬七千八百二十圓에比하야今年은十一月外지累計三千七百五十九萬四千斤에價格二百六十八萬五千七百八十九圓이엿고十二月二十日外지는二十一萬六千八百斤이輸入되얏다는바今年에元山港에輸入된數量은如左하다더라(單位百斤)

◇輸入量
一月二八九一〇　二月二四九〇
五　三月二一一一五　四月五三
七五九　五月四九二二四　六月
四六五五七五　七月一七二三〇
八月三〇二〇二　九月二八九七
一　十月一二〇九一　十一月一
二九六一(元山)

全蔚珍少年少女雄辯討論大會
時日 一九二六年一月二日午後六時부터
場所 蔚珍邑[illegible]拜堂
申請期限 十二月二十九日
申請場所 朝鮮日報社蔚珍支局
資格 滿二十歲以下의男女
演題 家庭敎育에父냐?母냐?
主催 蔚珍[illegible]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蔚珍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Dec. 27th, 1925.

SOCIALISM AND CHRISTIANITY. (3)

By Lee Sung-keun.

As the facts prove the Christian Churchs has made some mistakes in the past and still does to-day. In the middle ages, Christianity became a state religion of the Roman empire, and the hierarchy had been known as part of the state machinery and pillar of despotism and a foe of liberty. In this period the church was the wealthiest property holder and her leaders had opposed the social changes. This is the darkside of the Christian Church. These are a dishonor to Christendom but they are not to be charged to Christianity.

The Christian Church enforced the ideals of morality, lifting the quality of men stripped of all accident attribates such as race, wealth, and sex etc.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serfdom, the gradual abolition of war system by disarmament and prohibition, largely due to the efforts of the Christian Church. No institution had ever been so strong as the Church in the struggle with the evils in family, social community, and government through the ages, she was alma-matar of education in Europe and U. S. A. The Renaissance movement was mostly in the hands of Churchmen. Social Servise today is very beneficial. The Church in Jerusalem introduced Communism for which the leaders of the social movements are fanatical. In the middle ages the monks practised Communism in the monastery. Above all these the Revolution of love began with the coming of Christ. Even an opponent of the Church, like the socialist Karl Kausky said: "Though the Church did not abolish the poverty, she in all ages was the most effective organization for alleviating the misery growing out of the general poverty."

A leading German socialist said: "Christ's chief efforts were all directed toward creating a new genus of man as a means for establishing the ideal social condition."

Really the development of liberty was checked, not because they practised what Christ taught, but because they failed to do. The Christian Church is to be blamed on account of the disgraceful failures mentioned above, but not on account of the Christ's teaching.

社會主義와基督敎 (三)　李承根

幹線道路敷設을 京城府에陳情?
鐘路四、五、六丁目代表가 북부경성의발뎐을위하야 근근그진정서를데출할듯

시내종로통 연변에잇는 극장신대町洞總代)인 삼바아번(森泊雅繁)씨외수십인은 종로사뎡목 오뎡목 륙뎡목의 시민을 대표하야 동부도로 개착개수(東部道路開鑿改修)에 관한 진뎡서를 경성부에 데출하려고 결속히이것을 실현하려고 결의를하엿다는데 이 진정서는종로사뎡목으로 부터 동대문(東大門)방면이북에 대하야간선도로(幹線道路)를들하여달라는것이라는바 현재는 길이좁고비가오면 형언하야 말할수업슬뿐 아니라 북부경성의 발뎐상으로보아 중대문뎨이며 따라서 경성대학(京城大學)외에 각뎐문 학교가 잇는관계로 학생의통학상과 외관상으로 보아서라도 속히실현할필요가 잇다더라

怱忙한 年末의電話局
매일통화수가 십삼만을돌파

시내중앙뎐화국(中央電話局)에서는 년말을당하야 국장(局長)이하교환수(交換手)에이르기까지 대분망중에잇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뎐화를 사백사십사개를 더가설하엿슴으로 총가입자수는 륙천구백이십명인데십이월초생부터 뎐화거는수는 차차증가하야 십만통으로부터 십이만통을돌파하고 지난 이십오일에는 십삼만이천통에 달하엿는데 가장통화수가 만흔시간을보면 오전열시부터열한시까지한시간동안에 **륙천동** 이오본뎡뎐화국은 이십오일호출(呼出)한수만계산하야도 오전열시반부터오후네시까지 십삼만이천에 달하야금년에신긔록을지엇는데 금후에 갓가워갈사록더욱증가하리라더라

名古屋大火
극장신수좌전소 손해는십여만원

지난이십륙일오전두시십분경에 일본명고옥시 서구통옥뎡(名古

◇의장을다도는뎜두의장식 ‖중앙[illegible] 에서는뎜두의장식을여러가지로화려하게꿈여 비평을기다리고잇슴니다

郵便物도增加
렬차를더달기로

경성부산간렬도우뎐렬차는종래 야행(夜行)편은 이천립방척(二千立方尺) 주행(晝行)편은 일

踪跡이杳然한 舟橋町의强盜
련일수색에로력하엿스나 범인의종적은묘연하다고

긔보=시내주교뎡(舟橋町)일백삼십오번디 일본인 약종상도천우삼랑(稻泉又三郞)의집을엄습한 복면강도에 대하야 소관본뎡서에서는 권력을다하야 범인을수색중인데 사건발생이후 수하(手賀)사법주임은형사대를동독지휘하야 가면서 렬야수색하엿스나 그단서를 엇지못하고범인은 오히려오리무중에 잇는바 그범인의모양과의복형용에대하야는 수색상비밀에 부치는데이십삼일 오후일곱시경에 로량진부근에 나타나서 류주명(劉柱明)(三?)을죽이고 소지품을강탈도주한범인과 의복이나 년령의가든점이 만흠으로 혹시이범인이동일범인이나 안인가하야동서에서는 더우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더라

續刊紀念品 抽籤의結果
金浦支局에서 일등은정익준씨

본보김포(金浦)지국에서본보가다시 속간된긔념으로 관내애독자에게 드리는긔념품의 추첨은예뎡과가티 지난이십사일 정오에 본지국사무소내에서 거행하얏는데 가장 엄밀한방법으로 추첨을 행한결과 당첨씨명과 번호는다음과갓더라

一등(一人) 一〇四 金浦郡黔丹面元堂洞 鄭益俊

二等以下略

父子間爭訟
토디를헐가로 딸어서엇다고

강화군부내면관령리(江華郡府內面官廳里) 뎐근배(田根培)는자긔아들 종덕(鍾德)(二?)과 동군부내면신문리장원규외멧사람을걸어서 인천지령검사국에 고소를하얏다는데 그리유는 자긔아들인 권긔종덕이가 지나간봄에 택사쓰석유회사 남천특약뎜(南川特約店)을하기위하야 자긔명의로잇는 토디를 권긔장원규에게 삼천구백원에 팔엇는데자긔아들외에 멧사람을유인해서 현가보다 싸게하얏다하야고소한것이라더라(강화)

振興會에서 醜婦를회실레
북을지어가지고

전북금산군 제원면제원리(全北錦山郡濟原面濟原里)에사는 류달쇠(劉達釗)(三?)의 처홍씨(洪氏)(二〇)는남편이못난것과 병신이라하야 [illegible] 더라(무주)

各方面으로破滅되는 淸城鎭의現狀
채무를지고세모를넘는 무산자의설음누가위로

의주(義州)에서요색(要塞)의용호를굿는 청성진(淸城鎭)은 압록강 연안(鴨綠江沿岸)의 광평(廣坪)가산(加山)의두면에수천여호 만여인구를지배하는 한적은시가디(市街地)로서대안(對岸)관뎐현 장뎐하구(寬甸縣長甸河口)와서로 격하얏슴으로향국간에국계상 교통도 빈번할뿐더러경찰교통(交通)교육(敎育)위생(衛生)금융(金融)등의긔관도상당히 시설되야 (블충분한뎜도만치마는)얼핏 피상(皮相)으로만 본다면 그럴듯하다 그러나컴컴한그리면(裡面)에는날마다 뼈마다 작고작고 파멸(破滅)의길로 나아가는 돈업는사람들의 눈물겨운살림을 계속하야가는 가장비통한현상이야

◇참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더구나소위연초전매국원(煙草專賣局員)의무리한 횡포는 더욱심하야 평민ㄱ러류를 페사로 취급하기때문에 담배는 고사하고 옛날조차 피울수업다하며 심한자는자가용 연초경작면허취소(自家用煙草耕作免許取消)를함부로하고 도、군、면(道、郡、面)가통지조차 하지안흠으로 연초심으지도안코 세금(稅金)만바친사람도만타고한다

◇이것도 문화정치의한가? 한만아니라우리의경제뎍파멸이날로심함을딸하서소위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자인신상벌(紳商閥)의 착취는더욱 더욱무제한으로화머되야먹을것이업서굶주리고 입을것업서 떠는무산자들은 아츰을당하면 커녁이걱정되고 저녁에는아츰이념려되야귀처안혼하로하로를

◇싸호면 서분투하지마는잇다금 배를싸매이아니엿다 할수업시 아출을알면서도 그래도 입으로자선을부르짓는다는자들에게 향하야 동정을구하면 들어주기는 고사하고코우숭만하면서 「가난은나라도구원치못한다」한다이런개솔흔한 사회에몰리해한것을 연밭히커주하면 서최후 마지막으로법망(法網)이

◇무서운 활동을하면이아니엿마는 한쎄의 생명이라도이어볼양으로대안을향하야밀수입의길을떠나게된다 그러나그것도하로에 사오십전 벌이밧게되지못하는것일뿐더러 그것도 무사히목덕을달한다하면하로생명이라도 계속하지마는 만일 세리(稅吏)들에게 발각만되면 물품 차압은 물론이요 란타를당하는것이 례사이오 간혹

◇녀자들 이나맛나게되면 일홍을신데검사에 빙자하고 함부로 긴신을 주물으는욕을본다 이러한무지란포한 행동은지면의 관계로일일히 쓰지못하거니와 그반면으로 우리들의부주의또는 몰상식한 관계로파멸의길을 자취하는것도 한둘이아니엇다 가난한살림을 하로라도제속히몰덕으로 속초(粟草)나 화목(火木)가튼것을 동집으로 운반하야

◇대안의 중국인에게매각하는것이 농촌의 무산군의일중행사엿다 그러나하로종일고생하야엇는소득이라고는사오십전에불과하지마는이것으로만주속(滿洲粟)이라도 박군다면 귀한목숨이기지못하야우는커자의입에풀이라도 하련마는 임시뎍위안을엇고저 하로종일 수고롭게벌은돈을 대안의갑팔한 악쿨에다 집어바친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가통한일이냐생활상으로보아서나건강상으로 보아서나 미치는영향이과연그얼마나 할가? 그럼으로그곳에 멧사람들은 일시뎍구급방책으로 양주조합(釀酒組合)을하야 대안의중국 암쿨을방지코저 조선주(朝鮮酒)를 제조하고자한다고한다 이것도한때의미봉책으로는 [illegible]

◇무산군 의업여서 [illegible] 김약연(金躍淵)군의자선!이야말로 큰가물에 처럼 엇더케귀여운 일인지다 말할수업다 업는살림에 크다란 부채(負債)를지고 이중의세모(歲暮)라는 고개를 넘으려하니 힘도 부처러니와 더욱히 설명절이라하면 인간의일년중에 데일깁거운 날이것마는 약한안해와 어린자식으로부터 이날을 눈물저운 한숨으로다 이해이사회가 얼마나야속하고 슬프랴 이러한 무산군을 위하야 권긔김군은 뜨거운동정의마음으로 그동안 수년의년말을당할째마다 곤경에빠진 무산군들에게 각각가족의형편을보아 대미(大米)를 난화주엇다고한다 이얼마나갸륵하냐 이러한 인사들의 귀분을 바라는 동시에 일반무산군들이 각성하고 단결하야 잘살기를바라며 우리의 청년이 화려하고빗날날이잇슬것이다 (의주일긔자)

樂浪瓦發見
黃州古墳에서

황해도황주군영풍면리서리(黃海道黃州郡永豐面梨西里) 부근에는사방 비평내지 이십평되는 고분(古墳)이 일곱개가잇는데지난십일 경에엇던사람이한아를팟는바그가운데에서넷날기와가나왓슴으로 평양중학교(平壤中學校)에보내여감뎡을한결과일천팔백년젼락랑(樂浪)째기와로판명되엿다더라

非難이놉흔 文川驛의不備
란로에불도안피우고 결상도부족하야불평

함남문천역(咸南文川驛)에는대합실의모든설비가완전치못하야 일반의비난이 극도로 놉다는데 이제 그한두가지례를 들어말하면 요지음가티 혹독한치위에도 란로(暖爐)에 불을피우지 아니하야 대합실(待合室)에 모여드는려객들은 이구동으로모다 불평을 부르지즈며 혹은치운데서 오래동안 차시간을 기다리지못할터임으로 도로집에 드러왓다가 시간에연착되야 차를타지못한폐단이만코 또는 대합실안에 걸상의설비도 안전치못하야 승객들은서서 기다리다가 차에오름으로 일반의비난이 자자하다더라(문천)

日本隧道工事中 同胞二名生埋!
공사중흙이물러진새닭으로 한명은즉사하고한명은중상

일본열해선 뎐박군서북촌 관음뎡(熱海線田方郡西北村觀音町)공사장에는지난이십일아츰에 흙이문어저 그곳에서일하던 량창수(梁昌洙)(二四) 김긔뎡(金基正)(三?) 두명은 흙가운데에파무친것을 즉시 파내엿스나 량창수는 즉사하고김긔뎡은 중상을당하얏슴으로 즉시부근 삼도뎡(三島町) 무지병원(武智病院)에입원치료중이라더라(정강뎐)

사냥나갓다가 얼어죽어
죽우친구의 총을빌어서

지난이십삼일 오후에 무안군삼향면 왕산리(務安郡三鄕面旺山里) 국무농장(國武農場)부근도랑(小溝)속에 머리를북편으로두고목에는오리(野鴨)한마리와비닭이(鳩)한마리를너흔망(網)을 질머진채죽은시톄한아를학교갓다도러오든학생들이발견하고즉시부근주재소(駐在所)에급보하얏슴으로 동주재소에서는 이것 [illegible] 에보고하 [illegible] 즉시 [illegible]

愛人의甘言에 人肉의市場으로
남자는일본으로도망하고 녀자는평양서매춘부노릇 紊亂한學生의風紀

전라북도예사는 모무호의 딸김혜숙(金惠淑)(一七)(假名)이라는녀자는 자긔고향에서 보통학교를졸업하고 즉시경성에 올라와 시내모녀자 고등보통 학교에입학하고이래통학하든중가튼려관에잇든김덕원(金德源)(假名)이라는학생과자조상종하다가드듸여사랑의애착심이생겨다만녀성(女性)이남성(男性)을사모하는 마음으로는 멸정이아모것도생각지안코 권긔남자에게 모든것을희생하리라 생각하든차에 이것을 알은 김덕원은 자긔마음먹은것을성공하려면 약 사백원가량의 자본금을 요한다함으로 정량에게일신을 바치리라는 첫사랑의순진한 마음을가진 혜숙은그러면 자긔의몸을팔어서라도 그요구를 응하겟다 승락함으로권리남자는 그녀자를 평양까지데리고가서 중개인에게 위탁한후 몸갑으로 사백원을밧고 팔어가지고 멀리일본동경으로 도망하여버리엿는데창기(娼妓)업의감찰을 어둘려면 부모의승인이이서야 한다는바 부모의인감이잇데 일반남녀학생은 물론이어니와 장성한자녀를먼곳에 류학식이는부모들은주의할일이라더라

五峰山에서도
대호한마리를잡엇다

지난십일일 개천군외동면 오봉산(价川郡外東面五峰山)에서도 큰범한마리를잡엇다더라(덕천)

訴訟提起하고
일반의비난을바더

의주군고진면락원동(義州郡古津面樂園洞) 긔독교회장로김효건(金孝健)은 그교회권사 리지항(李志恒)녀사를상대로신의주디방법원에 소송을 데긔하얏다는데 그내용을들으면 약이십칠년전에현재의리지항녀사가거주하는락원동주택(住宅)을권긔김효건의종형되는김준건(金俊健)에게서 샛섯는데 그째에그집후원에잇는산록의디상권(地上權)까지샛는바지금으로부터약칠년전에김효건이가세부측량할째에 자긔명의로그산록을넘기엿슴으로본년사월에와서권긔 김효건자긔회로하야 리지항녀사더러 칠년동안에 매년화목(火木)이백여속을비여들엿슨즉 도합일천사백여속에(매속십오전식)대금이백십원을청구하는 소송인데 사실이즉 륙십여속밧게더비지못하는것이라하며 또 일반의권유와 그교회당회(堂會)로서 원만한해결을하야 주겟다함도불구하고그가티소송을데긔하얏다고비난이잇다더라(신의주)

遲鈍한 英陽安東電話
중계시간이만히걸려 일반손의영향이만타

경북영양안동간(慶北英陽安東間)은 리수가불과백리되는곳이나뎐화(電話)는 항상만흔 시간이걸린다는 비난이 만든중지난십구일에는 본사 영양지국장오현팔(吳鉉八)씨에게 안동잇는 권찬영목사(安東權燦永牧師)가 동일오후두시반에 안동국(局)으로 호출청구를하엿는데그되엿슴으로그시간을조사한즉두시반에안동우편국에접수된것이네시이십분에야영양우편소에도착되야 결국우편국과 우편소사이에서 한시반이나걸렷스며 출국하야가지고도 굉장한 시간이걸려서 그날소관에 구에가만엇다더라(영양)

소도적을逮捕
동대문서에서

이십사일하오일곱시경에양주군미금면 금곡리(楊州郡渼金面金谷里) 이백이번디 오우근(吳宇根)(?)의집에어던도적이침입하야 오양간에 매여두엇든소한머리를도적하야 갓는바 오우근이는 잃어버린소를 차저 경성에 올라와서가축시장(家畜市場)에서 자긔소를 발견하고소산사람과 시비를 하다가결국소관주재소에 고발 하얏는데사실 됴사한결과 고양군 숭인면수유리(高陽郡崇仁面水逾里)팔십사번디 김창성(金昌成)(?)이가 소를도적하여다가 수유리구십사번디 김원근(金元根)(?)에게 판것을 김원근이가가축시장에 판것이발각되어소관동대문순사가 김창성의집을 경계하다가금일오전한시경에 데포 하얏다더라

全朝鮮專門學校聯合雄辯大會

演士는每校一名式 來廿八日까지(京城寬勳洞九十五番地) 朝鮮學生會敎養部로

來一月中擧行(場所時日追後發表)

主催 朝鮮學生會 後援 時代日報社 朝鮮日報社

醉漢의暴行
료리집에가서 폭행하다가잡혀

시내길야뎡(吉野町)일뎡목구십번디에 현주를두고 텰도국차장(鐵道局車掌)으로 잇는 일본인뎐촌승영(田村勝榮)은 이십오일 오후일곱시경에 이십여명의친구를 다리고 시내남산뎡(南山町)료뎡 송엽옥(松葉屋)에서 만취가되엿 이십륙일오전세시경에 동료뎡을나와 네시경에또다시 동료뎡에 드러가고저하엿스나 문을잠그고 열어주지안흠으로 류리창을 파괴하고 드러가서경찰관의림검(臨檢)이라하면서 위협을하고 드러감으로 주인은 하는수업시부근파출소에 고발하엿슴으로 동파출소에서는 본뎡서까지 인치하야취됴중이라더라

少婦溺死
사소한일로부부 말다툼을한끗테

전북정읍군태인면백산리(全北井邑郡泰仁面栢山里) 박암산의처손녹남(孫祿男)(二四)은지난이십삼일 오전열시경에 그의남편과 의복에대한일로 말다툼이잇섯다는데숨이떠시나가서들어오지아니함으로 이상히 생각하고사면으로수색하야 본동면 박산한영구(韓永九)쳐수지(貯水池)에 싸저죽은것을 발견하얏다더라(태인)

洪原署에一處女
결혼식전날에도망하야 자유결혼을 하겟다고 警察署에가서呼訴

함남홍원군 홍원면(洪原郡洪原面)익면(翼面)함남리(咸南里)에사는 홍규련(洪奎鍊)이라는 당년이십팔세되는처자는 지난십일월이십구일에동군홍현면(好賢面)호하리(虎下里)사는리룡준(李龍俊)의누이 리후돌(李厚乭)이라는 당년열일곱살되는 쳐녀에게 장가들갓다가 신부되는리후돌이가 온데간데가 업슴으로할수업시 신부의마을에서 이틀방을 거처자고 도라오고그쳐녀는지금 읍내홍창련관(洪昌旅館)에투숙중이라는바 이제그사실의내용을 듯건데 그쳐녀는 가홍규련의동학이청삽촌되는김병섭(金炳燮)과약혼을식히엿던바 후돌이는나이열다섯살때부터그남편이실라고 그어머니에게말하엿스나 그어머니는 종시파혼하지아니함으로 후돌이는 두세번이나 홍규련의 집에와서그살림사리며 홍규련을 맛나보고 자긔집에 가서나는죽어도홍규련에게는 시집을 아니가겟다고 어머니에게 말하엿스나 어머니는 엇더한 수단으로든지 하번허락한것을 자긔딸이 실타고하야파혼이된다는것은큰수치로생각하고자긔딸을병섭에게로 보내고 금년이월경에 함흥으로 이사하엿던바죽어도 홍규련에게는시집을못 가겟다하든 십칠세의 쳐녀는잇나 도망하려고 고심초사하다가그럭저럭 보름동안이나 그집에가처어 잇다십히 로밤에는 김병섭이가 후돌이를 사랑(舍廊)밧에 나가 자라고함으로 등불을 쓰고자는데보이지 아니하든 홍규련이가돌연히 뛰여들어와서 강약이부동으로 할수업시 몸을더럽힌일도 잇섯는바 일변 붓그럽고일변분함을 참지못하야 엇되며서울다가 그날새벽에 도망하야자긔고향인호현(好賢)에가서그어머니에게 일장편지로 호소하엿더니 함흥에갓든 그의어머니는 급히

◇홍원으로 도라와서 반단으로 자긔딸을위로하고 드듸여금년륙월경에 홍원으로 도로이사를와서 자긔의딸을 [illegible] 당되는 홍규련과협의하야 속히결혼날을 택한바 금년십일월이십구일이라그러나 아모리비밀히 모든준비를하더라도 엇지 당자되는 후돌이가 가잇슬가 자긔의 결혼식날이 갓가워

◇오는줄을 알고도망일긔회만 엿보든중에 결혼식날을 압헤두고 이십칠일 밤에종적을감추고 이십구일이 지나가기만 고대하엿는데 결혼식날인이십구일이 지나가도 홍규련이가 자긔의마을에서 수일을두숙함으로 부득이 운포(雲浦)들거처

◇홍규련과 는죽어도못살겟다는 하소연을하기위하야 지난십칠일에 홍원서(洪原署)에출두하야 그진상을 고발하엿는바 홍원서에서 전긔홍창려관에 인도한것이라는데 후돌의말을듯건대 자긔는독신생활은 안하겟는데 이번홍규련의 사건이 쏫나면 자긔의마음에 맛는남자와자유결혼을하겟다고한다더라(홍원)

有夫女를 短刀威脅
피해녀자는 식음을전폐

전남담양군 대덕면갈뎐리 륙백삼십륙번디(潭陽郡大德面葛田里六百三十六)최모(崔某)(二?)의안해(妻)한성녀(韓姓女)(三?)는 이달십구일 오후 아홉시경에엇더한자가 강간(强姦)을하랴고 칼을가지고달려드는고로할수업시 소리를 질르고 이웃집으로도주하니가 강약이부동하야그자에게소리를친다는까닭으로무수히구타가지당한사실이잇서그의 남편최모는 소관대덕주재소(大德駐在所)에구두로고소를 하고다시담양경찰서(潭陽警察署)에

정식고소 를데긔하엿다는바 그사실인즉 동리에사는뎡락삼(鄭洛三)(三?)이가그날이마춤옥과장날인것을긔회로권긔최모가 옥과장에가고 다만한청녀만흔자이잇는것을 엿보고 금수가든마음으로 그가티 흉도잇는한청녀집에 침입하야 강간을할야고하엿스나 필경은 뜻을이루지못하고한청녀에게향하야칼로견우며내말을 듯지아니하면 이칼로쏘ㅈ터

죽이겟다 고어포를향으로한청녀는엇지할줄을몰러서소리를지르고 뛰여나가라고 할즈음에 뎡락산은 한청녀의머리채를집고무수히란타함으로동리사람들이 는김영원(金永變) 이란청년이 달려드러그자를준절히꾸짓고돌려보내엿다는바 그길로 한청녀는분한마음을 억제치못하야 대덕주재소로가서 구두 고소를하엿스나 그래도분한마음을 이기지못하야 식음을전폐하고 죽기로결심을 하으로 그의남편최모는할수업시 그가티고소를한것이라더라(담양)

偽印放賣 四寸의土地를
피해자는고소

전북정읍군태인면 오봉리(全北井邑郡泰仁面五鳳里)송종악(宋鍾樂)은 전북에 유수한 재산가로서 동도순창군(同道淳昌郡) 도조팔십여석밧는 토디를 그의장자 송일호(宋一鎬)의 명의로 두엇섯는데 송종악의장질이오 송일호의사촌되는 몽리송길호(宋吉鎬)는 암연히 송일호의인감(印鑑)을 위조하야 무슨수단으로 하엿든지 권긔토디를 호남선함열역전(湖南線咸悅驛前)일본사람 남리장일(南里長一)에게일만일천원에 매도하엿다는데 송종악은 고소를데출하야 소관경찰서에서는 취됴중이라더라(태인)

金堤에小兒僵屍
전북

김뎨읍내(全北金堤邑內)시장(市場)가가에는 지난 이십이일오전구시에 칠팔세가량된 어린아이의 시톄가장군에게 발견되야 즉시이를 읍내파출소에 알렷다는데 죽은아이는 얼어서죽은듯하고 주소도 불명한어 먹는아이라더라(김뎨)

『크리스마스』모임
대구각교회에서

대구(大邱)시내에잇는예수교각교회에서는 요사이 련일계속하야 크리스마스쏘는축하식을성대히거행한다는바 그시일과 장소는아래와갓다고(대구)

▲신뎡(新町)장로교교당에서는 이십사일부터 이십오일까지 동교당안에서 성탄축하식을 성대히거행한바 여러가지의 자미잇는것이만핫고

▲남산뎡(南山町)조선예수교회당에서는 이십사일부터 이십오일까지 성탄축하식을 성대히거행하엿다고

▲남성뎡교회에서는 이십사일부터 이십오일까지

▲남산뎡조선예수교회당에서는 이십사일부터이십오일까지

▲계성학교(啓聖學校)에서는이십일일부터이십이일까지

▲남산뎡장로교회당에서는이십오일동회당안에서성대히거행하얏다고

▲경뎡구세군영에서는이십오일부터이십구일까지

▲명치뎡련주교회당에서는이십오일부터동회당안에서

▲중앙례배당에서는이십사일부터이십오일까지

▲대남유치원에서는이십륙일부터 동원대강당에서 성탄축하식을성대히 거행한다고

▲례산(禮山) 미감리교 례배당에서는 예수(耶蘇)성탄(聖誕)을 성대히거행하겟다하며 이식을 위하야 미처흥미잇는 강연이만히잇서교원외에도 다수한관남객이 예년보다 만흘모양이라고 당부자들은 수일전부터 준비에노력중이라고

信川에小火
황해도

신천읍 척서리(黃海道信川邑拓西里) 박용준(朴用俊)씨집에서 이십삼일오전한시경에 부엌으로부터 불이붓는것을 행인이발견한바 한시경에야 겨우진화되엿다는데 원인은 방금됴사중이며 손해는 약이십원가량이라더라(신천)

兩金氏의債訟
일심에는원고패소

평남덕천군잠상면선가리(德川郡蠶上面船街里) 김익현(金益賢)은 동면도령리(同面陶令里) 김갑순(金甲淳)의 아버지되는 김수호(金壽浩)를상대로하야지난달 십칠일에 평양디방법원덕천지령에 대금청구소송(貸金請求訴訟)을제긔하야 지난이십일일에 원채무자 김갑순에게청구하라는 판결을바덧다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원고 김익현이가지난팔월이십일일에김갑순의집에서갈뻐에 현금사백 십팔원을김갑순에게입치하엿더니고치(總籍)장사하겟노라고 주지를 아니함으로 팔월이십륙일 에는칠백십원의차용증서를밧고그후구월팔일에 현금구십원을 밧고령재가 륙백이십원이라는데 채무자 김갑순은 평북초산등디에도라다니면서 상금까지 도라오지아니함으로 소송을 데긔하엿든것이라는데 김익현은 김갑순을상대로하야 대금청구 소송을다시데기 하리라더라(덕천)

◇集 會◇

◇基督靑年會講話 시내중앙긔독교청년회 종교부에서는 금이십칠일 오후세시반부터 일요강화회를 개최한다는데 연사와 연데는다음과갓다고

演題 基督敎生의[illegible] 演士 [illegible]

휘파람

▲요사이가 [illegible]에서장도、삶이、칠도의 소동이심하여서야할 말버개흥노되하기는 고사하고버개흥야치 하고리도어돼면히잘 수잇다고▲권팃하면 억개바람에 우숨거리는 정들서친구들은 모두어느곳에 거다버린 모양인게야? ▲그러데 일권커녁에 종로큰거리에서 엇던경찰서 량반인듯한친구가망년회(忘年會)술바람이지 는왈수업스나 얼근이 취해가지고넓고 큰길을 독차지할못하야 쐅고가드라고▲알고보니까그는 잡어야 할강도는못잡고 확시집에한잔싼보서취사이엇다고

滿洲踏査(五)
李涵

十月十九日石頭河子에서留하엿다 이날밤에北滿에첫눈(雪)이五寸假量이나뇌여 미처收穫못한穀物이눈속에무치엿다 農夫들의말을들으면 눈에무치운穀物은몃날나면곳녹아저서 아모損害가업다고한다 石頭河子는水田을못하고 부田만갈아먹는까닭으로同胞農이遠久히살것갓지못하고또森林이갓가워서 馬賊의侵害가甚하야매우어렵을것갓다

十月二十日아츰에눈이왓다우리는石頭河子에서떠나午前八時車를타고 九江浦站에向하엿다 石頭河子와九江浦間이우리나라里數로一百里나되는데 車費는一元二十錢이다 石頭河子다음에 芽不力이라는站이잇는데 韓人四戶(아부리)가살고이站에서北으로七十里假量을가면 韓人八戶가살며 芽不力站다음이 葦沙河站(新設葦沙縣)이니 站에서北으로十五里를가면 七里地(露里로七里니韓里로十五里假量)라는地點에 韓人四戶가잇고 여긔에서다시北으로十五里를들어가면 大梨洲(다리허)라는村에 八戶가잇고 葦沙河에서鐵路로二十里를西쪽으로 나려와서 沙不活(사부화)라는村에韓人七戶가잇다 하나그여러곳은 도라오는길에 둘러보기로 하고곳 九江浦로 온것이다 九江浦에는車站附近에韓人十二戶가사는데小學校一個所가잇는바 學徒는十九名이며 致員은 金元根校長은兼監 學監은朴熙東諸氏이라한다

同胞의耕作地가 水田이十八晌(一晌一千七百二十坪)이오 부田이六晌이라하는바 今年은免凶의收穫이라한다 家屋은 모다自己所有로建築하엿는데 三間或四間이며二間도잇다 距今七年前부터開墾이시작되엿는데 有志가처음으로이곳에와서 草菜를闢하고 構屋과陳地를하기 시작하엿다한다 地租는荒地를五個年을無料로耕作한後 每晌에白米七斗(每斗四十五斤)식준다고한다 石頭河子에서부터九江浦까지는開拓한지가六七年에 지나지못하엿슴으로 논(畓)바닥이나밧(田)가온데三四尺되가되는나무그루터기그대로 옷독옷독섯다 념우커서버히기 여럽은나무는그대로두고 접덕이만벗겨서죽어버렷다 그죽고말라서 서잇는나무들은生存競爭의 敗者로自處하고아모힘업시 바람에부닥겨서 그가지가 [illegible] 다騷擾한大野가 十分의六이오 年前에荒廢하엿다가 [illegible] 森林이 [illegible] 滿洲영명이가 淸朝入關後三百餘年을 東淸鐵路竣修한뒤 [illegible] 交通이敏活하게되야 거츠러진地面이기름지고 마혀던道路가르느게된것은 北陸의幸運인同時에 現在우리民族의 [illegible] 다힐것이다

八女學校聯合빠사ー大會

◇陳列品 針工品、刺繡、編物、其他女子手藝品各種

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來一月廿二、三兩日間 午前十時로부터 午後九時半까지

入場料 普通十錢、各參加學校職員生徒는無料公開

主催 中央基督敎靑年會 ◆ 朝鮮日報社

參加校(가나다順)

京城女高普
槿花女學校
貞信女學校
同德女學校
梨花女高普
培花女高普
淑明女高普
進明女高普